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燒
主幹 宋赫

發行所
서울市中區淸潤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日曜日發行

〈今週一言〉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땅도 곧 淨土가 된다. 〈유마경〉

유쾌한 山行 —合唱도 메아리쳐

東國人登山大會 성황

48개팀 2백40여명角逐 ROTC등 18개팀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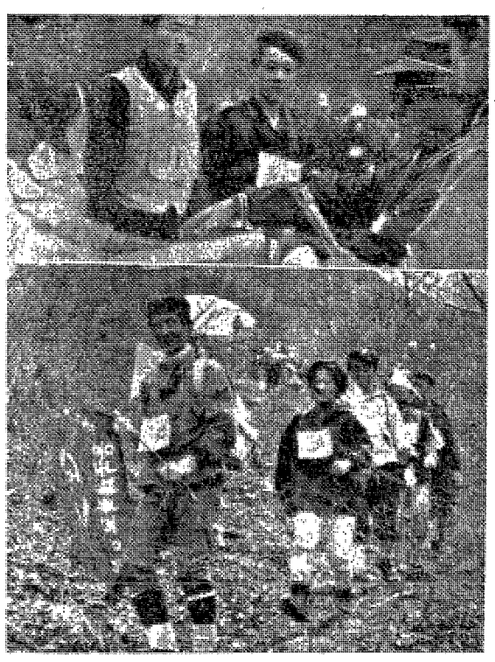
산악활동을 통하여 金東國人의 협동과 단결을 도모하고 4·19 열들을 기념하는 제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19일(日) 북한산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는 총48개팀(5인1조), 2백40여 동국등산인이 정장을 차림, 登靈閣까지 전장 6㎞코스에서 각축을 벌였는데 영예의 최우수상은 ROTC팀이 차지했다. 전선수들은 가슴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오전10시30분 정동 버스종점 청수장앞에 집합하여 간단한 개회식을 갖고, 각팀 1분 간격으로 출발했는데 0번 不老팀(미대·총장) 을 선두로 1번 동대신문사팀, 2번 몽키·클럽팀, 순으로 峻嶺을 넘었다. 이번 登山대회는 東國山岳會와 東國校友會(회장=유병록) 공동주최, 本社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순국선열 4·19영령, 그리고 앞서간 산악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 東國山岳會長 홍동래 대회장의 인사말이 있은다음 명예대회장인 김동의총장은 축사를 통하여 「뜻있은 학생들은 아직도 4·19의 거사를 기념하고 있는데 이날을맞아 44, 5천 (1백38, 75점)

△교직원팀 (1백43점)
△써클팀 (1백40점)
△일반학생팀 (1백47점)
△교학과팀 (1백47점)
△직원팀 (1백40점)
△조교팀 (1백39점)

▲우승=교편단팀 (1백43점)
▲준우승=연습림관리소팀 (1백40점)
▲우승=방송실팀 (1백40점)
▲준우승=여한생B팀 (1백40점)

△최우수상=ROTC팀 (한생서클팀)
△각학과팀
▲우승=식공학과팀 (1백38, 75점)
▲준우승=농생과팀 (1백40점)
△모범상=식림과팀
△장비상=어필알피니스트클럽팀, 행정대학원팀
△모범상=석림회팀
△운행상=기원학사팀
△인기상=학처장팀



登靈閣에서 입상팀에게 시상하는 광경④ 종점을 향하여 산을 내려오는 등산대원들⑦

土木工學科體典 본교排球준우승

이날 체육대회에는 농구 배구, 축구등으로 시종 각광을 받은 가운데 본교팀은 종합성적 5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열렸는데 본교팀 동장에서 열렸는데 본교팀은 육상경기에 있어 처음 참가하였는데 4·19영령을 위한 추모경기로 시작, 체육대회에는 농구 축구등으로 시종 각광을 받았는데 본교팀은 배구에 있어 처음 참가하였는데 본교팀은 배구에 있어 처음 참가하였는데 본교팀은 배구에 있어 처음 참가하였

제1회 東國人 登山大會를 보고

그 意義와 成果

社說

普通 登山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그것이었다。

그러나 昨今의 우리나라의 複雜한 都市生活은 재래의 登山觀을 完全히 파괴하고 있다。 汚染된 空氣와 生存競爭에 지친 神經과 生活에의 권태감을 말해는데는 老幼男女의 차별 없이 누구나 손쉽게 大自然의 美를 즐기며 來日을위한 活力素로서의 중적인 등산이 認識普及되고있는 까닭이다。

勿論 이와같은 등산의 대중화와 登山人口의 激增에는 一部反知識한 무리들에의한 자연미의 파괴 또는 積極的 방임인 것은 확실하다。

敎授 르는 學生이면 身分과 年齡의 差를 超越한 平等한 위치에서의 競爭과 이웃同胞의 必須條件인 協同精神의 培養 그리고 그 來往路上에서 주고 받는 親誼를 통하여 따뜻한 人間愛를 서로 느껴보는 것은 그 어떤 代價로서도 살수없는 高貴한 敎育効果이다。

이와같은 學校的인 行事의 推進이 늦은 感도 없지 않다。

그간 이 行事를 爲하여 關係者들이 最善을 다하였던 것은 물론이었으나 六十四年의 우리敎育에서 뿐아니라 國內 敎育機關으로서는 初有의 試圖였던만치 준비와 宣傳등에있어서 다소 未備點을 免할수 없었다。 참가選手 一百四〇名, 應援團및 役員을 합치면 三百四〇名, 이 대회에 참가 하였던 것만 보아도 이번 行事에대한 全東國人의 關心度가 충분히 表現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特히 年齡的으로 보아 七旬이 넘는 老齡에서 아직 10餘歲밖에 되지 않은 少女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身分的으로는 總長에서부터 교직원, 敎門, 在學生이 같은 코스를 서로 激勵하며 始終 和氣와 우애러스한 競技를 展開하였던 것은 確實히 佛敎理念으로 精神을 잡아들은 東國人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光景이었으며 所期以上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讚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事情이 許容되는 範圍內에서 全東國人이 參與할수 있는 大衆的인 登山大會가 자주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登山大會의 이번大會에서 느낀 점 몇가지 是正點을들어 그 是正方案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로 考慮되어야 할것은 登山코—스의 調整問題를 들 수 있다。 무릇 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過度의 疲勞를 强要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當局者는 이번 登山大會의 目的이 對話의 廣場을 마련하는 若干 無理가 있었다는 점은 年齡層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었을런지 모르나 五十이 넘는 年齡層에서 본다면 指定된 코—스가 意外로 險難한 코—스였으며 앞을 뒤따르기에 奔忙하여 서로 對話를 나눌만한 餘裕가 없었다는 것이 參加者들의 衆論이다。

(A)·(B)·(C) 等으로 나누어 自己의 年齡과 體力에 알맞는 코—스를 選擇하여 終着點 또는 中食處만 같이 하는 코—스를 考案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考慮하여야 할것은 當局의 創意工夫이다。 지금 內容이 同一한 賞品을 避하고 低廉하지만은 웃음을 爆發시킬수 있는 것을 摸索하여 고루 나누어 가지는 方策을 마련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끝으로 提案하고 싶은 것은 팀構成에 있어서 學內뿐 아니라 家族팀의 構成도 參加도 許容하여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即 全東國人은 그 家族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學園을 아끼고 그 成長을 苦待하는 氣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하는 氣風을 培養은 家族들이 參加함으로서 더욱 可能한 限 行事에 더욱 힘써 진다고 믿는다。

韓國文學 번역의 課題

「펜」大會 번역作品集 出刊에 부쳐

作品의 選定問題 土色的인 作品이라야

李: 차 「오는 펜」 대회를 6월 추진해온 우리 文公部에서 열릴 제37회 역사업은 그동안 많은 번역진이 참가하여 곧 첫 작품집을 선 보이게 될 것 같읍니다。

이번 번역사업의 경과를 보면 달초에는 「펜」 한국본부에서 주관하기로 했읍니다만 나중에 재정관계를 들고있는 文公部에서 맡아 작품선정에서 부터 모든일을 주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趙: 國語로 번역된 작품까지 우리나라 문학작품이 外國語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작품선정이 좋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요。

박상 번역할 작품 선정에 참가하고 보니 곤란한 점도 많았어요。 가령 작품집 분량의 문제로 장편소설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된다든가 詩의 소설을 섞어 넣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실제 책을 만드는데서 오는 제약이 많아 결국 작품 선정이 理想的으로되지 않더군요。 또 한가지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작품을 내게되었기에 믿주적 과정을 밟아야 하다는 등 여러가지, 실제 책을 만드는데서 오는 제약이 많아 결국 작품 선정이 理想的으로되지 않더군요。 또 한가지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작품을 내게되었기에 믿주적 과정을 밟아야 하다는 등 여러가지, 실제 책을 만드는데서 오는 제약이 많아 결국 작품 선정이 理想的으로되지 않더군요。

趙: 國語로 번역된 작품들을 外國人들이 읽을 것인데 번역된 작품들이 대체로 무슨 낌새가 있어야 번역할 것 같아요。

李: 번역할 작품 선정에 있어 어떻게 하셨는지요?

趙: 우리는 번역진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모두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작품선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李: 그러면 번역진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셨는지요?

趙: 우리는 번역진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모두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작품선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宋: 전에 선정위원회가 문공부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각학교, 학술기관 및 문공부 등에서 추천한 작품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읍니다。

趙: 그때 어느정도 참고 했을까요? 그때 어느 암케이트와 선정한것 등을 참고 했읍니다。

李: 그러면 이번 번역진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정할때 나중에 효과라든가 번역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 번역할 것인지 알았는지요。

趙: 그렇지 않았어요。 번역진에서 작품을 선정할때 번역상의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작품 이거나 그 나라의 代表作을 가진 작품이 아니면 번역할 수 없어요。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잡소 된다고 하겠어요。

李: 몇분이나 작품선정에 관여한 분은 돼죠?

趙: 목월, 제가 알기론 조, 백철, 서석초, 주요섭, 손동인, 저까지 모두요섭, 김길동, 일곱사람 입니다。

宋: 번역된 작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요。

李: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다기보다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였기 때문이죠。

趙: 그것은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였기 때문이죠。

李: 그러면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금년도 신입생 現況

身上카드로 분석한 실태조사

大學街의 새 얼굴, 신입생들의 신태를 파악 분석하여 얻어지는정확한 자료는 대학행정·학생지도 등에 중은 소재가 되고있다. 1970년도 신입생 千5명에 대한 출신년도, 출신학교, 再修여부등 여러가지 사항을 신입생의 제출한 원서와 신상카드의 조사로 알려졌다. 여기그 통계의 현황을옮긴다.<자료제공·교과과정연구회>

◇……卒業年度別分類……◇

今年度 신입생들의 졸업년도별 분류를 보면금년에 고교를 졸업한 이른바 현역파(?)들이 신입생 1005명중 50%를 상회하고 있다.

과거 평년간의 통계와 비교하면 69년도나 68년에는 그해 졸업자가 41·5%정도 를 차지 했음을 볼때 응해는 지원율이 증가 했음을 보수 있다.

따라서 再修생들의 합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보이고있다.

본교신입생들의 졸업년도별 분류와 타대학의 분류를 볼때 금년도의 이러한 분포상황은 일시적 재수생들의 통계를 보면69년도 졸업생이 302명 68년도 졸업생이 108명이며 經商大에 60년도 졸업생이 1명 입학하여 졸업년도가 10여년이나 차이가 나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있다.

◇……年令別 分類……◇

年令別 분류에는 졸업년도와는 조금다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학교에서 재수를 하지 않고입학한 적령가 1952년생임은 분명이 입학했으며 52년생은 216명에 지나지 않는다.

年令別로는 50년생이 285명으로써 가장많은퍼센테이지를 차지 하고있으며 51년생 244명, 49년생 110명, 48년생 29명의 순서로 41년생 1명까지 12년이나 되는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보다와같이51년, 50년생이전체의69%이를 보이고있다.

◇……姓別 分類……◇

금년도 新入 여학생들은10%로서 그희소가치는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해의 70여명에 비하면20여명의 증가를 보이고있으나 여학생들의 분포는 文理大와 師範大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이 설된 師大가 지난해에이 어 금년에도 53명이라는 가장많은 여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文理大가 35명 ◇佛敎宗立校別分類◇ 佛敎宗立校에서는 東國高校가 20명 ◇「분수의 포말」처럼 싱싱한 신입생.

◇……出身高校의分類……◇

전국 392개교에서 9명의 합격자를낸 69명 단과대학에서는 여전히 적은 수를나타내고있다. 男學生과 女學生의 비율은 불메도 女學生은 9對1의비율로서 여왕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는셈이다.

東岳 5명의합격자를내었다. 지난해는30명이상의 합격자를낸 학교와 1명의합격자를낸 학교등 합격자 수효의 격차가 심했으나 금년은 中東高校가 22명의 합격자로서 톱을 장식학교 3~5명線의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있으며 文理大가 35명, 佛敎大가 5명이고기타 단과대학에서는 여전히 적은 수를나타내고있다.

◇……再修生 入學率 저조……◇

女學生은 師大53명으로 수위

서울出身이 대체로 많아

(21명), ③普成(20명) ④東國(20명) ⑤東北(20명) ⑥城東(18명) ⑦東星(18명) ⑧麻隣(18명) ⑨京東(17명) ⑩龍山(17명)이며 그밖에 仁昌, 永登浦등이 15명의 합격자를 내고있다.

男學生이나 女學生에있어서 「베스트·텐」도 모으며 특히 여학생합격자 수가 서울에서 진출하고 있다.

◇……佛敎宗立校別分類……◇

佛敎宗立校에서는 東國大가 20명 합격자를 내어 작년에 이어 가장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단과대학에서 지난해 증원학과의 학생수가 늘어나고있다. 합격자는 男學生과 女學生의 비율은 불메도 女學生은 9對1의비율로서 여왕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는셈이다.

□卒業年度 大學別 분포□

대학 / 년도	佛大	文理大	法大	經商大	農大	工大	師大	총계
70	30	101	55	37	63	106	76	468
69	14	72	22	40	39	78	37	302
68	5	23	14	17	8	25	16	108
67	6	8	4	9	4	9	3	43
66	2	9	3	1	1	4	1	21
65	8	6	1	1	2	3	1	21
64		1	1	3		3		8
63				1	4			5
62		1	1					2
61		2		4	1			7
60					1			1
검정	4	2	3	1	2	2	1	15
其他								4

「오늘의 東國人」을 읽고

大學行政과 統計

具 滋 興 〈文理大 조교수〉

一家의 家計를 세우는 데도 가족의 數와 가족의 상황을 파악함이 없이는 어렵다. 5千餘 대학생이 정원의 전과 밝은 미래를 수놓는 東國人의 발전과 현시점에서 가족 개개인의 현황을 확한 이해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민중에 늦게나마 東大新聞을통해 발표된 통계조사「오늘의 東國人」을 읽고 무척 생각한바 있다. 이런 계자료가 정성하게 요구되매 學生課에서 이점에 대해 誠意를 표한다.

1 行政과 통계학의 發達

근대초기에 있어서 인문주의와 문예부흥의 대로 母集團의 정보(母市洞, 母分數등…) 를두어는 推定과 주어진 통계적 假說, 零假說, 對立假說등…)을 설정하는 「檢定論」을 중추로 (하는 「推測統計學」이었다. 英國의 R. A. Fisher에 의하여 고찰되었으며 더욱 우리T-分布와Poisson分布등의 이론을 토대로한 小標本論(Small Sample Theory)이 현대통계학의 精粹이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행정은 통계학의 발생을 유발시켰고, 통계학은 기하급수적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복잡한 국가형태에서의 행정의 연구분석에 불가분의 관계로 「有限母集團」이라 하더라도 全數調査에의한 통계분석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 정보를 얻어 適時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統計 任意標本(Random Sample)을 채택하여 조사시 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정보를 適期에 얻어 이용할 수 있다.

1 調査시기의 선정問題
1回인 경우 學期初에
2四인 경우 每學期初에 실시함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本調査에서 조사시 기에 유의치않으므로 1학년 전원이 누락된다. 따라서 연어진 정보는 東國人 전체의 「縮同値」라 할수없다.

(註·標本抽出 時期選定問題)

다양성있는 分析

本調査에서는 母集團(東國人전체)의 각 특성 (Characteristic)의 전체에 대한 比率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活用度가 좁다. 屬性間의 相關分析등도 동시에 실시되었으면 보다 유익하다.

每生定期的인 調査필요

토대로 각 특성의 경향을 推定, 장래 정책방향 定立에 이용되어야한다. 이러한 조사는 동국인 성의 증가, 경향을 추정, 여학생 증가 교육시책에 반영시킨다.

3、행정사무및 자료분석 機械化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適期에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分析方法과 改善點 調査方法 선정의 問題

年令別 분류에는 졸업년도 졸업생이 302명 68년도 졸업생이 108명이며 經商大에 60년도 졸업생이 1명 입학하여 졸업년도가 10여년이나 차이가 나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있다.

◇……年令別 分類……◇

재수생들의 통계를 보면69년도 졸업생이 302명 68년도 졸업생이 108명이며 經商大에 60년도 졸업생이 1명 입학하여 졸업년도가 10여년이나 차이가 나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있다.

◇……卒業年度別分類……◇

今年度 신입생들의 졸업년도별 분류를 보면금년에 고교를 졸업한 이른바 현역파(?)들이 신입생 1005명중 50%를 상회하고 있다.

과거 평년간의 통계와 비교하면 69년도나 68년에는 그해 졸업자가 41·5%정도 를 차지 했음을 볼때 응해는 지원율이 증가 했음을 보수 있다.

따라서 再修생들의 합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보이고있다.

본교신입생들의 졸업년도별 분류와 타대학의 분류를 볼때 금년도의 이러한 분포상황은 일시적 재수생들의 통계를 보면69년도 졸업생이 302명 68년도 졸업생이 108명이며 經商大에 60년도 졸업생이 1명 입학하여 졸업년도가 10여년이나 차이가 나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있다.

◇……年令別 分類……◇

年令別 분류에는 졸업년도와는 조금다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학교에서 재수를 하지 않고입학한 적령가 1952년생임은 분명이 입학했으며 52년생은 216명에 지나지 않는다.

年令別로는 50년생이 285명으로써 가장많은퍼센테이지를 차지 하고있으며 51년생 244명, 49년생 110명, 48년생 29명의 순서로 41년생 1명까지 12년이나 되는차이를 보이고있다.

위에서보다와같이51년, 50년생이전체의69%

適期調査로 施策에 반영

機械化·정밀分析해야

「惠化」와 「東國」거쳐

혼란중 中央학생회장

思想 분열해도 일치단결

부푼 가슴 山谷누벼…

「東國人 등산대회」 스케치

協同·격려·浪漫의 하루

不老팀 상치쌈 들며 감회 젖고

苦戰하던 洪교수…下山길엔 호통(?)

◇不老팀의「리더」로 앞장선金총장

보다나은 大學生活을 위한

어프로우치 APPROACH

교수님 강의時間 지각도 곤란"학생

교수"「에티켓」은 自身의 誠實度 말해"

◇金교수

◇李양

李外潤 同門 〈京畿大學도서관장〉

輸出入 業界의 幹部社員
公務員·銀行員·一般知識人
軍人·学生들을 위한 必携書

最新 英文書翰大典

〈本書의 主要目次〉
PART I. 英文書翰의 作成要領
PART II. 社交文(Social Letters)
PART III. 私信(Personal Letters)
PART IV. 펜 팔(Pen Pal)
PART V. 公用文(Official Letters)
PART VI. 商業通信文(Business Letters)
PART VII. 電報·TELEX
APPENDIX I. 各種書式作成
APPENDIX II. 韓英書翰文 表現辞典
APPENDIX III. 英文書翰 用例辞典

값 7,000원
4개월 月賦

注文処 (24) 2974-5

도서관 4月현재

신착도서 안내

도서명	저자명
○○○종류	
한국연감69	한국연감편찬위원회
중앙연감69	중앙연감 〃
동화연감69	동화연감 〃
출판연감69	대한출판문화협회
합동연감69	
조선도서해제	조선총독부편
도서관학개론	한에도서
출판 사회학	안 춘 근
100철학	
사상가의 명언	이 일 등
교양철학	권 세 원
논리학원론	최 재 희
철학개론	최 동 희
실존주의사전	(松郎信三郎)
미학사전	홍문당신사
불교철학대사전	창가학회
행동과학사전	
300사회과학	
등권투사론	김 종 국
신재정학	황 하 연
신경제원론	이 만 기
한국경제론	이 만 기
재정학연습	김유대 김준수
후진국경제론	김유박최이근문만만
경제학각론	황 창 기
경제학사사	이 한 서
경제정책론	서 서 정 갑
화폐금융론	서 서 정 갑
신경제원론	김 윤 환
신상법(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어음수표법	현대교육사
신상법(상)	이 태 영
신경제원론	중근원조사과편
한국경제연감	澁見倫太郎
육연감	東 京 堂
한국이론연구	〃
이조법전고	
조선법제사고	
신화전설사전	
풍속사전	
민속학사전	

도서명	저자명
법각론(상·하)	大槻仁
세법통계연감	국제연합통계국편
세법의연구	
현행법령국의경제학	小林卓爾
저한발국의경제학	小殷文一
일반사회경제사요론	김 철
저개발국공업화론	
국 제 법	
법죄론의신구조 (상·하)	木村龜二
서식전서강제집행경매	山口軍司
서식전서비송사건수속	須田隆次郎
재판제도연구	此田光蹊
신민법연습	谷口知平
경제분석의역사 (1—5)	
도시문제강좌(1—6)	岩井弘融
해사육법	해사육법편찬위원회편
자본주의의 사상구조	
서양경제사사강좌	大塚久雄
가치분의제문제	吉川大二郎
부경영경영법라련집	吉村敏正
민사소송법체계	
민사소송법연구	伊藤 乾
형법이론의신전개	安平政吉
관세육법(44년)	일본관세협회
분점법의이론	西原春夫
서식민사소송	이 용 훈
경리부경과 법률상의 책임	河井信太郎
공업소유권법	杉林信義
조세판례	中川一郎
조세법요강	
세법의 기본문제	
인간재판10년	
소득세의이론과실무	
일본의세법	
최신법인세의계산이론	
국가구조론	
국가경제기구의연구	

도서명	저자명
상사법의연구	金子燮一
세법의원리와해석	佰井臣一
신손해보험실무강좌	손해보험법
4000어학	
독어입문	강 두 식
독어초급	강 부 우
독어연습	하 우 근
패턴식영작문	구 완 회
최신포부장어사전	연구사사서부
여성어사전	東 京 堂
신이태리어사전	백 영 사
신수학화대사전	小柳司氣太
영문해석연습 1,200제	酒井善孝
외래어사전	荒川惣兵衛
중국어사전	倉石武四郎
대독화사전	
광 사 림	金澤王三郎
대 학 전	上田萬年
500순수과학	
자연과학개론	
물리학실험법	
현대과학 대사전 (지구·인간·생명)	
이화학 대사전	白井俊明
원대천문학사전	荒木俊馬
600응용과학	
신회계학	
상업영어	
상업부기	
현대회계학	
자동차기술연구회편	
자동차운전	
은행부기	
회계학연습	
마 잇 팅	
인사관리	
경영용어해설	
타자교본	
신회사법	
전기용어사전	
공업소유권용어사전	
부역수속사전	

도서명	저자명
관리회계	신호대학회계학연구실
영어상업통신문	光井武八郎
세계무역의현계단	熊谷喜一
무역요론	岡橋芳三
통상보무역실무사전	上牧直三
국제통관학	西村眞六郎
자동제어기기편람	자동제어기기편람편집위원회편
용수배전람	용수배수전람편집위원회편
700예술	
예술가의 명언	이 일 등
음악대사전	국민음악연구회편
연극백과대사전(1—6)	평범사간
800어학	
문학가의명언	이 일 등
독어소설	이 박 충 서
서지프의신화	오 현 우
어느 수녀의 이야기	소 윤 역
일어당전집	휘문출판사
일벽전집	장 남 특
일어원편전집	이 어 편
영원한세계명시전집	한림출판사
영미고사전설사전	高山房
신춘문예소설전집	중앙출판공사
헤밍웨이전집	헤밍웨이 외
세계명언집	조명화
이효석전집	
웰만 웰세전집	예 문 관
손문전집	외무성조사부편
900역사	
영경고려사	정 주 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東 京 堂
세계지명사전(서양편)	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	坪江仙二
동사	喬 夫
기밀일로전사	谷
한국전쟁사	국방부편
조선문화사 연구	稻葉君山

貿易士·貿易英語 試驗對備大學生·會社員·銀行員 歡迎 당신도 貿易士가 될수 있다
〈5月시행 무역사 대비강좌〉
短期完成 貿易英語
自己著書로 直講 강사 洪忠植 敎授
貿易實務 易去來法 關稅法併講 (講師 최 식 先生)
夜間 6時30分~8時40分·早朝 7時30分~8時30分
〈開講 수시접수〉
관인 I·L·I 학원
종로2가네거리 ⑭ 1817

관인 I·L·I 학원
◉美國人會話 (初·中·上)
◉日本語 (初·中·上)
◉佛語 (初·中·上)
◉獨語 (初·中·上)
◉인터뷰반
◉상업영어
◉時事英語 (TIME & DIGEST Korea Herald반)
수시접수 電話
장소…종로2가 네거리 삼일로쪽, 이명래고약옆 (74) 1817

官認 I·L·I 海外留學部
TOEFL ……金 忠敎授
英語(英作文문반 해석전문반)…朴노을敎授
國史(예상문제)……金史硏敎授
時事論文(土·日)…尹重石敎授
☆留學相談환영
▲合格보장
관인 I·L·I 학원
종로2가 네거리 ⑭1817

留學
文敎留學고시 개강 5월1일 5月對備 원장 김동규先生

팝 송 째즈 피아노
개인지도
팝송·가요 보컬·섹스폰
※아마추어를위한 속성 단기 지도
○악기대여 시간자유
수시접수
종로6가 뻐스정류장앞
쟈니음악학원 (75) 9983

픽 크 클래식 기타

<13>

高基里 -대원-

拒逆

羅赫埰

셀루로이드版이 밀려 오고
그대는 말썽은 꿈을 뿌린다。
함께 빌 데 없는
길손이 자주 되리라。

내 편을 넘어 神은
부질없는 물건 안에서 기지개를 켜고
꽃 삭이어 너울대는 외곬의
반납된 편지들,
沙彌僧의 하소를 태우며
나는 긴 각오를 창조한다。

茶卓위에 자욱한
머리를 쓸어넘어
불타는 死靈들의 울부짖음, 피 섞인 先祖의
트악질이 자개의 진창에 떨혀가고
好奇의 님프들이 그위에서 춤을 춘다。

豫定裏는 서릿날을 내밀고, 날아오는 觀綠이
솔밭을 누벼 갈 때마다
햇살은 만장으로 펄럭이는데
얼어진 채 毒한 눈물로 쓴 겨울 펴지여。

봄 여름 가을을 감고 펼다가
때 아닌 불볕렴에 스러지는가。
일껏, 흰 옷에 젖은 惡語는
님의 손때 묻은 마음 달래며
신지핀 詩句로서 부풀어 오르고
노한 時計針이 마른 기침을 하고 있다。

슬기의 손톱로 옮트는
골짝의 솔고 옮산한 불빛에 잠혀
또 다른 숲 위를 거닐며
누가 칼을 쓰고 구름의 鐵窓을 흔들어 왔는가。

잠깐 紅鶴의 발레
創世紀의 넋이 떠돌던 기쁨의 날은 허파빠진
말씀에서 자맥질을 하고
성큼, 내가 하늘을 밟고 섰다。

【四文社】

短篇小說 ①

白血戰場

□李 種 暎□

무의 (白武義) 상병 (上等兵) 은 가슴이 섭해이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무반을 나와 관망대 (觀望臺) 의 잔디밭에 웅크리고 앉았다。

선들선들한 바람이 인다。 밝쥐가 의 추녀끝을 맴 돈다。 지붕 위로 점게 웅숭그린 감악산。 옛부터 가마귀가 많기로 유명하여 이름조차 감악산이다。 바람이 일적마다 나뭇잎 엇갈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이 험준한 산악의 8부 능선에 서부터 유격 훈련장이 있다。 잠록을 제거하고 세워둔 표지판이 달빛을 발아 해울처럼 무섭다。

「외줄타리」「두줄타리」「세줄타리」「수평이동」「완경사 오르기」「급경사 오르기」「섬표·펫펜」「하강 (下江)」「수송도하」

모두는 눈에 선한 유격 훈련의 산악 과정들이다。 무의는 기초 헷웰위로 시커멓게 웅크린 깍은 듯한 안벽에서 치렬치렬 매어달린 로—프를 타고 아득한 절벽 밑으로 뛰어 내리는 드릴과 죽음의 교차로를 생각하며 두눈을 압벽에롯 박는다。 전생이 없을뱀, 두눈의 그 곳의 조교나。 맡이 조교지, 무의는 늘 올빼미 (교육생) 들 앞에 놓고, 드릴 속에 죽음을 직감하는 십차례 반복한다。 그런나 그는 그 시범을 쉉어하지 않았다。 로—프를 사타구니 새로 맡아 양손으로 감아쥔채 압벽을 박차고 주루룩 다람쥐처럼 미끄러 질 때, 산악복의 영령이 밀으로 대어둔 가죽에 붙들이 튀기도록 부빈는 로—프의 따끔한 감촉과 필사적으로 감아쥔 손아귀위로 가죽장갑이 가져다주는 감촉, 바람이 짜—악 머리위로 기어오르는 감촉 등에 어느새 익숙해 있었고, 그 감촉을 천날밤의 신부방에서 처럼 마냥 향그럽게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시범 조교의 생활에 익숙해 잦주록 발작처럼 잔인해지곤 하는 때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산비둘기나 토끼같은 짐승을 잡으면, 날뛰처럼 꼬무니에 차고 내려와 반합속에 끓여내어 소주잔을 기울인다는가 하지않고, 죽은 놈의 심장에 총구를 들이대고, 다시 총을 쏘아 조그만 짐승의 심장을 찢어가 놓고, 군화발로 멀리 차 버리거나 발끝으로 응깨 놓고는 통쾌하게 웃어 제킨다。 그런 그의 잔인성은 결국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에게로 옮아 가고 있었다。 닥치는대로 비둘기만 보면 총을 쏘아버린다。

그리고 비둘기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놈의 꽁지를 치켜들고 꽁지뭍에 코를박고 냄새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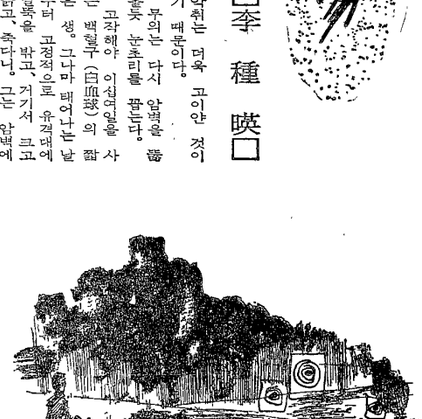
『평화에도 꼬리와 대가리가 있다。 가슴이있고 심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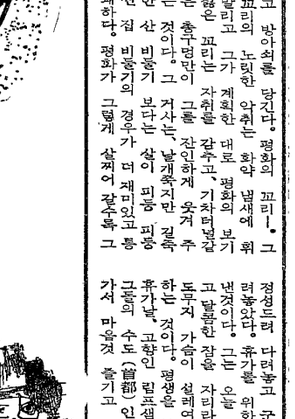
그는 마치 미친 놈처럼 웅얼대며 속 평화의 꼬리를 향해 총구를 드리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평화의 꼬리! 그 꼬리의 노릇한 악취는 화약 냄새에 뒤섞인 꼬리는 자취를 감추고, 기차터널같은 출구멍만이 그를 잔인하게 웃겨 주는 것이다。 그 거사는, 날개죽지만 걸죽한 산 비둘기 보단는 살이 피둥 피둥 찐 집 비둘기의 경우가 더 재미있고 통쾌하다。 평화가 그렇게 살찌어 잘주록 그 꼬리의 악취는 더욱 고이얀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는 다시 암벽을 뚫을듯 눈초리를 꼽는다。

고작해야 이심여일을 사는 백혈구 (白血球) 의 짧은 생。 그나마 태어나는 날부터 고정적으로 유격대에 말뚝을 박고, 거기서 크고 늙고, 죽다닉。 그는 암벽에 「다이나마이트」라도 장치해서 해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 그에게는 내일로 미루한 제일 즐거운 휴가날이 고함들이 박두한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휴가복을 얻어다 정성드려 다려놓고 군화도 A급으로 빌려놓았다。 휴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것이다。 그는 오늘 밤만을 아주 편하고 달콤한 잠을 자리라 마음 먹었나, 도무지 가슴이 설레여서 잠을 이루지못하는 것이다。 평생을 통해 단 하루뿐인 휴가날, 고향인 림프샘에 잠시 돌렸다가 그곳의 수도 (首都) 인 두뇌림프샘에 가서 마음껏 놀기고 오리라 마음 먹었다。

그는 두눈을 감고 뜨눈으로 밤을 설쳐이었다。 무성한 잡초위로 이슬이 달리고 구이로 달빛이 파편처럼 부서질 뿐 사방은 너무도 고요한 적막뿐이다。





<SLOW>
<RANGER COSE>
G·M·C는 그 사이로 뿌연 먼지를 나가는 보급차였다。 무의는 쌀가마와 된장, 고추장을 수령해 있었다。 뿌연 먼지 꼬리를 바람보고 줄기차게 뒤 따라 온다。 B음까지만 G·M·C 속에서 드럼통과 함께 덜그러거리던 림프샘에 가서 여쭈잔 말인가。 혈액단신으로, 태어나던 날부터 유격대에 끌려가 고목처럼 두껍운 표피를쓰고 돌아갈 고향엔 아무도 없다。 백혈구들은 태어나는 날부터 군인이 되어지는 때문이다。 무의는 고향에 가야할 필요도, 의무도, 또 반겨줄이 마저 없다는 부조리에 울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를 위해 숱한 비이러스의 침공을 피로써 맞아 싸워왔단 말인가, 무의는 가슴이 화확 타들어 가고 울화가 주먹처럼 폭구멍에 맺히는 것을 의식했다。 하긴 일부터 유랑살아 가볼수도 있는문제다。 돈을 주면 술도있고, 또 많은 유흥의 대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그런 열기없는 타산은 도무지싫다。 그는 다시 먼지 꼬리가 휘갈기며 헐고러지는 것을 명청히 응시했다。

「군인, 그것도 고향에 가볼수도 없다。 오직, 싸우고, 부시고 이기는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알았다。)

그는 귀가 따갑도록 울백리들에게 밤 아내면 자신의 능변을 생하하고 피식웃었다。 그는 진리를 가리켜주는 지체적 진리라고 말하였다。

「고체적 진리」는 과관적 진리가 아직 주체적 진리가 아직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말은 키엘케골의 진리의 특성을 단적으로 도리어 「진리는 주체적이다」라고 보지않음으로 키엘케골은 「진리는 주체적이다」라는 명제를 「진리는 주체적이다」라는 유명한 이성적이다」라는 유명한 과 현실은 일치 한다는 根本思想에 인각해주지고 헤겔은 방대한 객관적진리를 의미 하는놀이 아닌 진리라고 주장 한다는것은 앞에서 말한반있다。 둘에 加해서 벳이 된다 거나 3각형의 내각의합 이 직각이 된다는 수학적인 客觀的 眞理를 키엘케골도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도 결코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진리도 진리임에는 틀림 없겠지만 실존주의에서 구하는 진리 종류의 싸늘한 진리가 아니고 나자체 있는 진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니이체의 길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과감하게도 「神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내리렸다。 「神에 대신할 새原理는 무엇이냐? 그것은 超人이야말로 땅의意義다」 우리는 모름지기 땅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니이체는 현대의 無神論的 實存主義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의실존은 어디까지나 神을부정하는 實存이다。

키에르케골은 「우리는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애의 과제로 삼은데 대한 대답」 우리는 보통 「인간의 意義」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니이체는 一生 反基督으로 자처하였다。 이와같은 두사상가는 여러점에 있어서 대조적이었지만 깊은 인생체험과 人間的 성격및 운영에서 이상하게도 공통되는바가 있었다。 독일의 탁월한 실존철학자 야스퍼스 (1833) 가 「理性과 實存」이라는 책에서 성명한 바와같이 키에르케골도、니이체도 이를테면 모두 人生의 例外者요 그 時代의 例外者였다。

키에르케골과 니이체역시 모두자기를 「例外者」라고 예외자였기 때문에남 의식 하였다。 그들은 조금도 이해되지못하였을뿐 아니라 그 시대의 行進대에 발을 맞추수가 없었고 그 사회의 大勢의 대열에 참가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例外者는 필연적으로 독하여야 하는가보다。 고 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대응의 대열 속에 섞일 때、사회의 거센 물결속에 휩쓸려 볼때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고 자기의 진실한 존재를 상실하기 쉽다。 고독한 속에서 조용히 혼자 자기를 들여다 볼때 우리는 참된 자기、본랙의 자기、나의 진실된 실존과、부딪치게 될것이다。

實存主義는 간단히 말하면 近代哲學에 對한 하라도 만일 그 속에 나 라도 만일 그 속에 나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의와 가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키에르케골의 불만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나자신의 진리다。 내가 나 때문에 죽을수도 있는 진리가 과관적 진리가 아니고 나자신의 진리를 엄연히 강타놓고 주체적 진리가 골實存的의 眞理라고 주장 한다는것은 앞에서 말한반있다。 둘에 加해서 벳이 된다 거나 3각형의 내각의합 이 직각이 된다는 수학적인 客觀的 眞理를 키에르케골도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도 결코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진리도 진리임에는 틀림 없겠지만 실존주의에서 구하는 진리 종류의 싸늘한 진리가 아니고 나자체 있는 진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니이체의 길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과감하게도 「神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내리렸다。 「神에 대신할 새原理는 무엇이냐? 그것은超人이야말로 땅의意義다」 우리는 모름지기 땅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니이체는 一生 反基督으로 자처하였다。 이와같은 두사상가는 여러점에 있어서 대조적이었지만 깊은 인생체험과 人間的 성격및 운영에서 이상하게도 공통되는바가 있었다。 독일의 탁월한 실존철학자 야스퍼스 (1833) 가 「理性과 實存」이라는 책에서 성명한 바와같이 키에르케골도、니이체도 이를테면 모두 人生의 例外者요 그 時代의 例外者였다。

키에르케골과 니이체역시 모두자기를 「例外者」라고 예외자였기 때문에남 의식 하였다。 그들은 조금도 이해되지못하였을뿐 아니라 그 시대의 行進대에 발을 맞추수가 없었고 그 사회의 大勢의 대열에 참가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例外者는 필연적으로 독하여야 하는가보다。 고 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대응의 대열 속에 섞일 때、사회의 거센 물결속에 휩쓸려 볼때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고 자기의 진실한 존재를 상실하기 쉽다。 고독한 속에서 조용히 혼자 자기를 들여다 볼때 우리는 참된 자기、본랙의 자기、나의 진실된 실존과、부딪치게 될것이다。

實存主義는 간단히 말하면 近代哲學에 對한 하라도 만일 그 속에 나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의와 가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키에르케골의 불만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나자신의 진리다。 내가 나 때문에 죽을수도 있는 진리가 과관적 진리가 아니고 나자신의 진리를 엄연히 강타놓고 주체적 진리가 골實存的의